

강정호 · 추신수 나란히 홈런포 가동

이대호 데뷔 이후 첫 4번타자 등장 김현수 3경기 만에 멀티히트 기록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러츠)와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강정호의 시즌 10호 홈런은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고, 텍사스는 추신수의 달아나는 시즌 2호포로 승리를 거뒀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3경기 만에 멀티히트를 때렸고,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는 미국 프로 무대 데뷔 후 첫 4번 타자로 나서 안타를 이어갔다. 강정호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3루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득점 1도루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6(127타수 35안타)로 그대로 유지됐다.

강정호의 방망이는 두 번째 타석에서 터졌다. 5-1로 앞선 3회 선두타자로 나온 그는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상황에서 3구째 구속 88마일(약 142km) 슬라이더를 공략해 그대로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대타 출전을 포함해 3경기 만에 나온 안타이자 8경기 만에 터진 홈런포였다. 시즌 10호.

지난해 15개의 홈런을 쏘아 올린 강정호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강정호는 최희섭과 추신수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3번째로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강정호는 5회 무사 1, 2루 기회에서는 6구째 삼진으로 물러났다.

타이 6-7로 뒤지던 7회 2사 후에는 3루수 쪽으로 향하는 강습 타구를 때렸다. 공이 3루수 글러브를 스치고 외야로 빠져나가는 사이 강정호는 2루를 밟았다. 아쉽게도 안타가 아닌 수비 실책으로 기

록했다. 이후 강정호는 매트 조이스 타석 때 3루를 홈쳤지만, 조이스가 삼진으로 아웃돼 동점 득점에는 실패했다.

피츠버그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 6-7 역전패를 당했다. 2연패에 빠진 피츠버그는 시즌 전적 34승38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를 유지했다.

추신수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 우익수 겸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볼넷 2득점 활약을 펼쳤다. 전날 4타수 무안타에 그친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종전 0.213에서 0.220(50타수 11안타)으로 올랐다.

0-0으로 비기던 4회 두 번째 타석에선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했다. 루그네드 오도어의 사구와 노마 마자라의 볼넷으로 3루까지 진루한 추신수는 아드리안 벨트레의 적시타로 홈을 밟아 득점을 올렸다.

타이 5-4로 앞서던 8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6구째 구속 96마일(약 155km) 포심 패스트볼을 강타해 왼쪽 담장을 넘기는 아치를 그렸다. 지난 14일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전 이후 나온 시즌 2번째 홈런이다. 1점차 아슬아슬한 리드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값진 홈런이었다.

텍사스는 6-4 승리를 거두며 시즌 전적 47승26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김현수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2번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지난 21일 텍사스 레인저스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가 전날 다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 1볼넷 1득점을 기록한 김현수는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김현수가 멀티히트를 때려낸 것은 지난 20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전 이



강정호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3루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득점 1도루를 기록했다.

후 3경기만이다. 시즌 타율은 0.333에서 0.339(112타수 38안타)로 올라갔다.

이대호는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파크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이대호의 시즌 성적은 0.293에서 0.291(127타수 37안타)로 조금 떨어졌다.

최근 2경기에서 대타로 나섰던 이대호는 MLB 데뷔 첫 4번 타자로 경기에 나섰다.

/김민근 기자



남원시청 복싱팀 실업선수권 금 3개 은 1개 획득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이 '제11회 전국실업복싱 선수권대회'에 출전해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출전한 남원시청은 -49kg급에서 김도연의 우승을 시작으로 -56kg급 신동명, -69kg급 석현찬 선수가 각자의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60kg급에 출전한 임우택 선수도 우승을 노렸지만 아쉽게 인천시청의 김준기 선수에게 패배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남원시청은 개인전 석권에 힘입어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최우수선수상에 신동명 선수, 지도상에 강월성 감독이 수상하며 대부분의 타이틀을 품어 안았다.

강월성 남원시청 감독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려서 기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시는 남원시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북테니스협회 초대 회장에 정희균씨 선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하나로 합쳐져 출범한 통합 전라북도테니스협회의 초대 회장에 정희균(사진)씨가 추대됐다.

지난 3월 국민체육법 개정에 따라 통합된 전북테니스협회는 대의원 23명 시·군 대의원 9명 육성학교 대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통합회장 추대, 경과보고, 규장안 승인, 임원 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된 정희균 초대회장은 "양 단체가 하나 된 만큼 서로 협력하여 전북 테니스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옛 명성에 맞는 전북테니스협회가 되도록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서로 상생하며 발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추대소감을 전했다.



/김민근 기자

유로 2016 벨기에 조 2위로 16강 진출

스웨덴 1-0으로 꺾어 다크호스 입증...헝가리와 대결

벨기에가 스웨덴을 누르고 토너먼트에 합류했다. 스웨덴은 '죽음의 조' 탈출에 실패했다.

벨기에에는 23일(한국시간) 프랑스 니스의 알리안츠 리비에라에서 열린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 조별리그 E 조 3차전에서 스웨덴에 1-0으로 이겼다.

이탈리아와의 1차전 0-2 완패로 불안한 스타트를 끊은 벨기에에는 아일랜드(3-0 승리)와 스웨덴을 연거푸 누르며 다크호스

의 명성을 입증했다.

2승1패(승점 6)가 된 벨기에에는 이탈리아(2승1패·승점 6)에 승자승에서 뒤진 2위로 16강에 합류했다. 벨기에의 16강 상대는 헝가리로 결정됐다.

반면 스웨덴은 1무2패(승점 1)에 그치며 중도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베테랑 스트라이커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대표팀 생활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반전을 위해 승리가 절실했던 스웨덴과

조 2위를 확정하려는 벨기에에는 전반 내내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다. 벨기에가 좀 더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스웨덴이 먼저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18분 이브라히모비치가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를 알리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간 뒤였다.

0의 행진이 이어지던 경기는 후반 39분 벨기에 쪽으로 기울었다. 에당 아자르가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중앙으로 골을 넘겨줬다. 공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 머물러

있던 라자 나임골란에게 향했다.

나임골란은 드리블로 공간을 확보한 뒤 과감한 오른발 슈팅으로 굳게 닫혀있던 스웨덴의 골문을 열었다.

두 골이 필요해진 스웨덴은 후반 41분 이브라히모비치의 터닝슈팅이 골대를 빗어 내면서 동점을 열었다. 오히려 벨기에의 역습에 고전하며 그대로 경기를 마쳤다.

E조의 또 다른 경기에서는 아일랜드가 이탈리아를 1-0으로 꺾었다. 로비 브래디가 후반 40분에 유일하게 골맛을 봤다.

아일랜드는 1승1무1패(승점 4)로 조 3위가 됐지만 와일드카드로 16강 무대를 밟게 됐다. 아일랜드는 개최국 프랑스와 8강행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김민근 기자

조병용선생 추모 남원오픈 국제 검도대회 성료

'제24회 조병용선생추모 NAMWON OPEN 국제 검도대회'가 6개국 2,500여명의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려 성황리에 종료됐다.

국내 최고의 검도대회로 자리 잡은 이번 대회는 한국검도계의 거목이었던 조병용 선생을 추모하는 의미로 시작되어 올해로 24회째 개최되고 있다.

대회 종합우승을 우리나라의 황지검도관이 차지했으며 춘향부 우승은 일본의 히오키시 선수단이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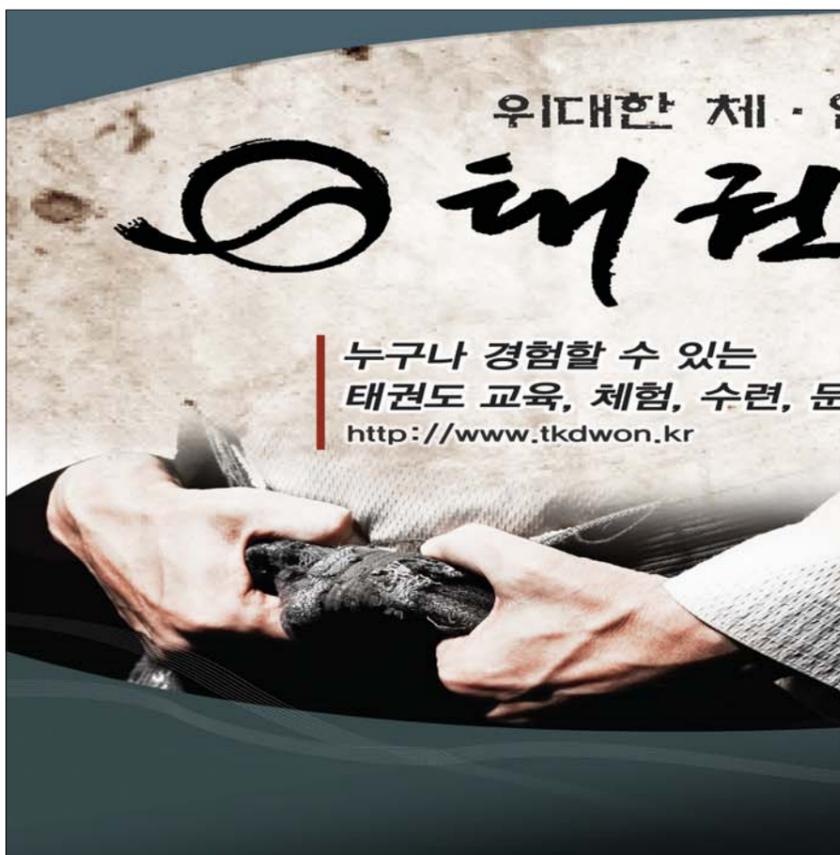
이원주 남원시장은 "타 지역 및 각국에서 남원을 방문한 선수단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체육시설확대를 통해 검도발전 및 스포츠계의 한류열풍에 남원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